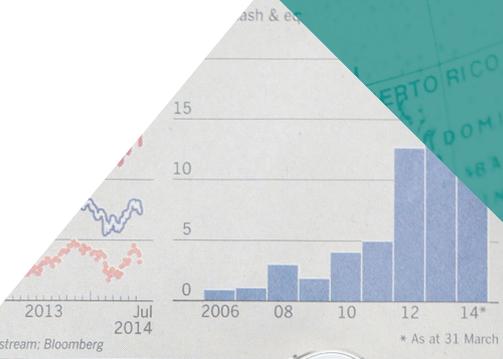


May  
2019

#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t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r  
...17 times). About \$14bn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ion is not the biggest  
...JP Morgan estim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  
...best  
...s an owner and c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



May  
2019

## 목 차

|                        |    |
|------------------------|----|
| 금리 -----               | 03 |
| 달러/원 환율 -----          | 05 |
| 엔/원 환율 -----           | 07 |
| 유로/원 환율 -----          | 08 |
| 주요 국내경제 지표 -----       | 09 |
|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 09 |



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금 리

## 4월 동향 **긍정적 미·중 협상 기대 및 성장률 지표 호조 등에도 국내 1분기 성장 충격이 국고채 금리의 큰 폭 하락에 영향을 미침**

초반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 제한 시사 속 낙관적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으로 상승 출발

- 4월 초, 독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의 하락압력에도,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제한 시사와 낙관적 미·중 협상 기대 등으로 상승 출발
  - 4월 초 IMF의 유럽경기 전망 하향 속에 독일 경제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가 부재하며 약세를 이어간 점이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 제한 시사와 다소 낙관적 기대가 섞인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출발

중반, 중국 경제 성장률 호조에도 금통위의 긴축적 금리동결 속에 국내 성장전망 하향 등으로 상승폭 반납 양상

- 4월 중반, 중국 1분기 성장률 호조로 위험선호 영향이 반영되며 상승세 이어졌으나, 금통위의 완화적 금리결정과 국내성장률 하향 전망 반영으로 상승폭 반납
  - 4월 중반,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6.3%를 0.1%p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선호 반영으로 국고채 금리의 상승 추세 지속
  - 이후, 금통위가 현재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에도 향후 국내 경기전망 불확실성으로 성장전망을 2.5% 하향 수정함에 따라 금리상승 폭도 반납되는 양상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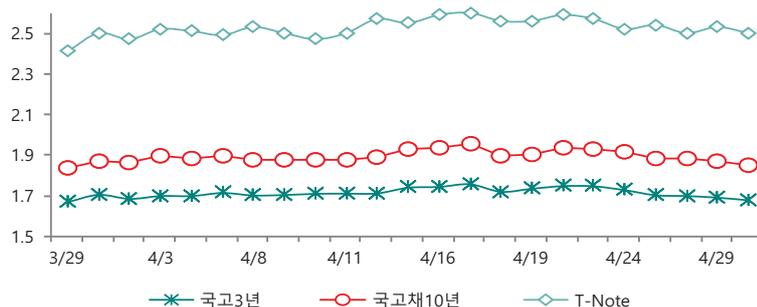
국내 1분기 성장률의 시장예상을 크게 밑도는 충격에 큰 폭 하락세 시현

- 4월 후반, 국내 1분기 성장률 충격 속에 큰 폭 하락세 시현하며 마감
  - 4월 후반, 금통위에서 연내 금리동결 가능성이 고착화되는 양상 속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미 국채금리 연동 등 대외 변수의 영향이 커지는 양상 시현
  - 그러나 이후, 국내 1분기 성장률이 -0.3%(QoQ)로 큰 폭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1.7% 초반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

### 4월 평균

국고채(3년): 1.73%  
 국고채(10년): 1.89%  
 T-Note(10년): 2.53%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 5월 전망 미국의 낮은 물가수준 지속, 유럽 정치경제 리스크 상존 속에 국내경제 부진에 따른 한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소폭 하락 예상

| 평균         | 2019. 1Q | 2019. 2Q <sup>F</sup> | 2019. 3Q <sup>F</sup> | 2019. 4Q <sup>F</sup> |
|------------|----------|-----------------------|-----------------------|-----------------------|
| 국고채(3년, %) | 1.80     | 1.70                  | 1.70                  | 1.75                  |

- 견조한 미 금융경제 상황과 긍정적 미·중 협상 기대에도 낮은 물가 지속에 의한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가 국내외 국채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및 중국 경제 성장률 선방과 5월말~6월초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럼에도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며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는 점이 국고채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외부적 요인이 될 전망

미·중의 성장률 선방에도 낮은 수준의 미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국내 경제성장충격, 향후 성장률전망하향 이슈등이 단기적으로 개선 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 속에 대외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금리 상승을 제한할 전망
  - 국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가운데 한은 국내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등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유로존과 일본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 정치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일시적인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국내 1분기 성장 충격과 성장전망 하향 속에 대외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유로 정치리스크 상존 등이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내적 국내 1분기 성장쇼크 외에 약화되고 있는 물가 및 수출지표 등을 고려할 때, 5월 금통위의 금리인하 소수의견 개선 가능성 등도 국고채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대내적으로 1분기 성장률 충격 외에 물가와 수출성장률 등 국내 경제의 향후 방향성이 점진적 회복으로 선회하기에 역부족 상황이라고 판단됨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5월 금통위에서도 금리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국고채 금리 하락압력을 다소 높일 것으로 예상됨

5월 국고채(3년) 금리는 1.63%~1.77% 범위 예상

| 상승 요인   | 하락 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 예상 상회해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상승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낮은 물가 수준 지속에 따른 완화적 통화스탠스</li> <li>· 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 가능성</li> <li>· 금통위에 대한 금리인하 기대감</li> </ul> |



# 달러/원 환율

## 4월 동향 중국 1분기 성장률 선방에도 국내 긴축적 금리정책 스탠스 속에 예상을 크게 하회한 성장률 충격으로 큰 폭 상승

월 초,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슈 및 IMF의 글로벌 성장 전망 하향에 따라 원화 약세 기조 유지

- 월 초, 브렉시트 및 미국 경기지표 불확실성 속에 상승세로 출발한 환율은 이후,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슈와 IMF 세계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급등 시현
  - 4월 초, 달러/원 환율은 견조한 미국 제조업 경기 흐름에도 시장 예상을 하회한 미 고용지표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 출발
  - 이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채권시장 투자 철수 소식에 1,144원대까지 급등 후, 되돌림을 보였으나, 이내 IMF 세계성장 전망 하향 조정 등이 반영되며 상승력 지속

중반, 중국 GDP 호조에 국내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이 원화 약세를 심화

- 중반,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에도 중국 1분기 GDP 선방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연동 후, 금통위 금리동결 속 성장전망 하향 조정으로 원화약세 심화
  - 4월 중반 ECB 회의 이후, 유로 경기둔화 우려가 증폭되었으나 이내 중국 1분기 GDP가 6.4%로 시장예상을 상회함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며 1,130원대 초반 까지 회귀하는 양상
  - 그러나 이후, 금통위에서 긴축적 금리 결정 후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함에 따른 국내 경기모멘텀 약화가 원화에 반영되며 다시 1,139원대까지 상승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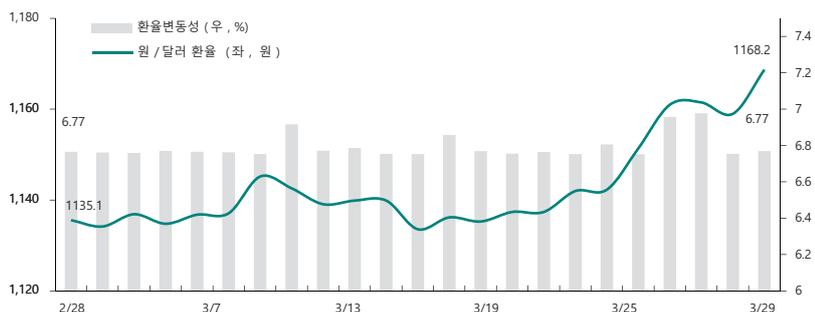
국내 1분기 GDP 충격 속에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5월 FOMC 경계감 등으로 1,170원대 근접

- 4월 후반, 국내 1분기 GDP가 -0.3%(QoQ)를 기록하며 1,160원대 진입 후, 5월 FOMC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지며 1,170원에 근접하며 마감
  - 4월 후반, 국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성장의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난 가운데 무역수지도 적자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은 1,160원대 진입
  - 이후, 중국 제조업지표 부진과 5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며 환율은 1,170원에 근접하는 가운데 전월보다 33.1원 상승한 1,168.2원으로 마감

4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42.8원

4월말 달러/원 환율 : 1,168.2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5월 전망** **미·중 경기 선방 및 낙관적 무역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하방압력 지속과 유럽 정치경제 리스크 등에 따른 원화 약세가 다소 부각될 것으로 예상**

| 평균         | 2019. 1Q | 2019. 2Q <sup>F</sup> | 2019. 3Q <sup>F</sup> | 2019. 4Q <sup>F</sup> |
|------------|----------|-----------------------|-----------------------|-----------------------|
| 달러/원 환율(원) | 1,125.7  | 1,155                 | 1,160                 | 1,165                 |

- 미국 경기 상황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 견조세이나, 물가 부진이 상존하고 있는 측면이 달러화의 모호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3.2%로 나오며 시장예상을 크게 상회한 점이 미 경제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
  - 그러나 물가지표가 목표치를 하회하며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달러약세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5월 달러화 방향성은 모호해질 것으로 보임
- 여전히 잠재하는 유럽경기 우려와 유럽의회선거 관련 정치불확실성은 미·중 1분기 성장률 선방에 따른 시장 위험선호를 다소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유로존의 성장률이 소폭 회복흐름을 나타냈음에도, 여전히 독일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리세션(침체) 우려는 5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5월 유럽의회선거 관련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단기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대내적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상 배당 역송금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 소폭 상승 예상
  -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한은의 완화적 스탠스와 재정확충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기회복의 신뢰도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 여기에, 수급상 4월 경상계정 악화 가능성과 국내경제 회복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외국인 자본유출 변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환율 하단을 제한하는 가운데 1,170~1,180원 수준의 터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임

미국 GDP 선방에도 낮은 물가 상황 지속에 따라 달러화 방향성은 다소 모호함을 띠 것으로 보임

독일 경제의 단기 회복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5월 유로존 정치리스크가 일시 확대될 수 있는 점이 위험회피 심리를 가중 시킬 전망

5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70원 ~1,180원

| 상승 요인  | 하락 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조한 미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금융시장 상승 등이 달러 강세 견인 가능성</li> <li>· 국내 경기 우려 지속과 금융시장 신인도 하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li> <li>· 4월 대외거래 수지 악화 가능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물가지표 하락을 고려한 통화 완화적 스탠스</li> <li>· 미·중 무역협상 진행과정 속에 위안화 강세요인</li> </ul> |

# 엔/원 환율

4월 동향

달러/엔 환율은 전반적인 달러 강세 속에서 111~112엔의 다소 높은 수준에서 좁은 변동 시현. 엔/원은 월 후반으로 가면서 한국 경기 부진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1,050원에 육박하는 상승세 시현

엔/원 환율 전월대비 19.3원 상승한 1,046.1원에 마감

- 달러강세 속 안전자산 선호 약화에 엔/원 환율 하락하였으나, 월 중반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한국 경기 부진으로 가파른 상승세 시현
  - 월 초, G2 경제지표 호조와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낮은 수준 유지했으나,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아시아 시장 철수 이슈에 따른 원화약세가 상승 견인
  - 월 중반,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약화 영향으로 1,010원대로 하락한 후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에 엔/원 환율 상승 전환
  - 월 후반, 호주 물가 부진 및 중국 제조업 경기지수 하락 등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와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전면 금수조치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 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 쇼크에 엔/원 환율 1,040원 상회하며 마감

5월 전망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완화가 지속되며 달러/엔은 111엔대의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엔/원의 경우 한국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원화 약세 지속 전망으로 추가 상승 여지 상존

달러/엔 제한된 변동 전망

- 달러/엔 환율 상승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제한된 변동 전망
  - 주요국 경제성장률 호조 속 위험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5/18) 가능성과 미일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달러/엔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유럽 정치경제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달러/엔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엔/원 환율 추가 상승 여지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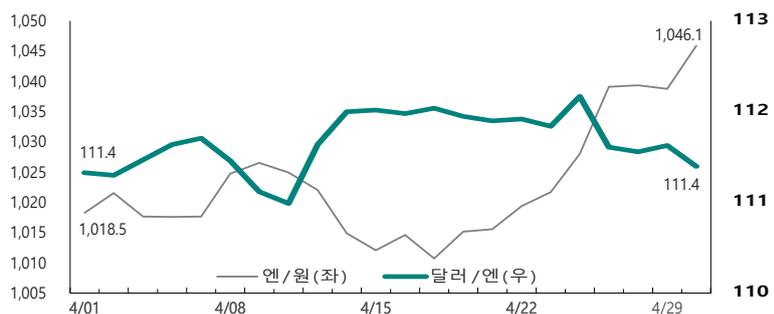
- 원화 약세 지속에 따른 엔/원 환율 추가 상승 예상
  - 한국 경기둔화 우려는 5월에도 지속되며 엔/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미일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마무리 된 영향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4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1.7엔

4월 엔/원 평균환율 : 1,023.2원

5월 엔/원 예상 범위 : 1,020~1,05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유로/원 환율

## 4월 동향

유로/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 영향에 상승 시현 후,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로 1.11달러대까지 하락. 유로/원 환율은 한국 펀더멘털 부진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 시현

- 유로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월 후반 한국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쇼크에 유로/원 환율 큰 폭 상승 시현
  - 월 초,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완화 영향에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아시아 시장 철수 이슈 더해지며 유로/원 상승
  - 월 중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진정과 브렉시트 연장 결정 등 상승 요인과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제조업 PMI 부진 등 하락요인 혼재
  - 월 후반, 유로존 경기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성장률 위축에 따른 원화 약세 강화에 유로/원은 1,300원 상회하며 마감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31.4원 상승한 1,304.2원에 마감

## 5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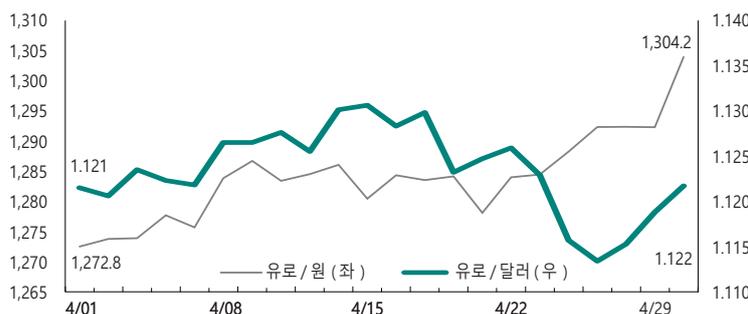
유럽 정치 불확실성 부각되며 유로/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될 전망. 유로/원은 원화 약세 지속 영향으로 제한된 상승 예상

- EU 의회선거가 유로/달러 환율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
  - 1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의 예상 밖 호조 등으로 심화되었던 경기 부진 우려가 진정되며 유로/달러 환율 반등을 시도할 전망
  - 다만, EU 의회선거(5/23~26)에 대한 경계감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중도와 정당의 과반수 확보 실패 가능성과 영국의 선거 참여 여부 등 리스크 요인 다수 상존. 극우세력 선전시 유로/달러 하락 불가피하나, 이변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전환 예상
- 유로의 방향성 탐색 속 원화 약세 지속 영향으로 유로/원 상승 예상
  - 한국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원화 약세 지속 및 유로존 경기 저점 인식, EU 의회선거 이후 정치리스크 해소 가능성 등으로 유로/원 상승 전망
  - 다만, EU 의회선거 경계감,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이슈 등 유로/원 하락요인도 다수 상존함에 따라 제한된 상승 예상

유로/달러 환율의 반등 시도 속 EU 의회선거 결과에 주목

유로/원 환율 제한된 상승 전망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4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23.3달러

4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84.2원

5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80원~1,32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 항 목            | 2018년 |               | 2019년          |                |               |              |
|----------------|-------|---------------|----------------|----------------|---------------|--------------|
|                | 연간    | 4/4           | 1/4            | 2월             | 3월            | 4월           |
| 전 산업 생산        | 1.4   | 2.6<br>[-0.6] | -0.6<br>[-0.8] | -1.9<br>[-2.6] | -0.7<br>[1.1] |              |
| 제조업            | 1.2   | 4.6<br>[-1.4] | -2.1<br>[-3.0] | -3.5<br>[-3.4] | -2.9<br>[1.5] |              |
| 서비스업 생산        | 2.1   | 2.7<br>[0.4]  | 0.9<br>[0.1]   | -0.4<br>[-1.6] | 0.6<br>[0.2]  |              |
| 소매판매액          | 4.3   | 3.0           | 1.7            | -1.8           | 2.4           |              |
| 설비투자           | -3.8  | -6.0          | -19.5          | -26.8          | -15.5         |              |
| 건건설기성액         | -5.3  | -7.9          | -8.3           | -12.2          | -2.9          |              |
| 경기선행지수         | -     | -             | -              | 98.3           | 98.2          |              |
| 실업률 (%)        | 3.8   | 3.4           | 3.4            | 4.7            | 4.3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             | -              | 0.5<br>[0.4]   | 0.4<br>[-0.2] | 0.6<br>[0.4] |
| 경상수지 (억달러)     | -     | -             | -              | 26,019         |               |              |
| 상품수지 (억달러)     | -     | -             | -              | 54,794         |               |              |
|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             | -              | -11.4          | -8.2          | -2.0         |
|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             | -              | -12.6          | -6.7          | 2.4          |
|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     |               |                | 1,799          | 1,788         | 1,734        |
| KOSPI (월말)     | -     |               |                | 2,195.4        | 2,140.7       | 2,203.6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             | 2018.11 | 2018.12 | 2019.1  | 2019.2  | 2019.3  | 2019.4  |
|-------------|---------|---------|---------|---------|---------|---------|
| 미국 USD      | 1,120.8 | 1,115.9 | 1,112.8 | 1,124.4 | 1,135.2 | 1,168.1 |
| 일본 JPY(100) | 987.5   | 1,016.7 | 1,021.8 | 1,010.1 | 1,026.1 | 1,046.1 |
| 유로 EUR      | 1,275.8 | 1,270.1 | 1,277.1 | 1,275.9 | 1,276.2 | 1,304.2 |
| 영국 GBP      | 1,428.6 | 1,421.8 | 1,458.6 | 1,493.0 | 1,482.6 | 1,517.1 |
| 중국 CNH      | 161.5   | 162.4   | 165.7   | 167.9   | 168.7   | 173.1   |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증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9.5월)

| 일 (SUN)   | 월 (MON)   | 화 (TUE)  | 수 (WED)  | 목 (THU)  | 금 (FRI)   | 토 (SAT)   |
|-----------|---|--|--|--|---|-----------|
|           |   |  | <b>1</b> 美 FOMC(4/30~)<br>한 4월 무역수지(\$5,222M)<br>-수출/수입(-8.2%/-6.7%, YoY)<br>일 4월 닷케이 PMI 제조업(49.5)<br>미 FED 기준금리(2.25~2.50%)<br>미 4월 Markit 제조업PMI(52.4)<br>4월 ISM 제조업지수(55.3)<br>3월 건설지출(1% MoM)<br><br>Fed Chair 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After FOMC Meeting | <b>2</b> BOE 통화정책회의<br>한 4월 CPI(-0.2% MoM/0.4% YoY)<br>중 4월 Caixin 제조업 PMI(50.8)<br>유 4월 Markit 제조업PMI(F)(47.8)<br>독 4월 Markit 제조업PMI(F)(44.5)<br>미 3월 제조업수주(-0.5%)<br>3월 내구재 주문(F)(2.7%)                              | <b>3</b><br>유 3월 유로존 PPI (0.1% MoM, 3% YoY)<br>미 3월 도매재고(0.2%, MoM)<br>4월 실업률(3.8%)<br>미 4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52.9/52.8)<br><br>Fed's Bullard, Daly, Kaplan and Mester Speak at Hoover Event<br>Fed's Bowman Speaks at Hoover Institute Policy Conference<br>Fed's Clarida Speaks at Hoover Institute Policy Conference | <b>4</b>  |
| <b>5</b>  | <b>6</b><br>중 4월 Caixin 서비스PMI(54.4)<br>4월 Caixin 종합PMI(52.9)<br>유 4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2.5/51.3)<br>3월 소매판매 (0.4% MoM, 2.8% YoY)<br>독 4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5.6/52.1) | <b>7</b> 豪 RBA<br>호 RBA 기준금리(1.50%)<br>한 4월 외환보유고(\$405,25B)<br>일 4월 닷케이 PMI 종합/서비스(50.4/52)<br>중 4월 외환보유고(\$309,76B)<br>독 3월 공장수주(-4.2%, MoM)<br>미 3월 소비자신용지수(\$15,188B)                | <b>8</b><br>한 3월 경상수지(\$3601.9M)<br>일 3월 금정부 의사록 공개<br>중 4월 무역수지(\$32,64B)<br>-수출/수입(14.2%/-7.6% YoY)  | <b>9</b><br>일 4월 소비자대지수(40.5)<br>중 4월 CPI/PP(2.3%/0.4%, YoY)<br>미 4월 PPI/Core(0.3%/0%, MoM)<br>(2.4%/2%, YoY)<br><br>Fed's Evans Speaks at Community Development Conference<br>Fed's Bostic Discusses Economic Outlook | <b>10</b><br>일 4월 금정부 요약본 공개<br>미 4월 CPI/Core(0.4%/0.1%, MoM)<br>(1.9%/2%, YoY)<br><br>Fed's Bostic Discusses Economic Outlook  | <b>11</b> |
| <b>12</b> | <b>13</b><br>일 3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97.1/100.4)   | <b>14</b><br>한 4월 수출물가지수 (0.5% MoM, -0.5% YoY)<br>수입물가지수 (1.3% MoM, 4.3% YoY)<br>일 3월 경상수지(¥2676.8b)<br>유 3월 산업생산 (-0.2% MoM, -0.3% YoY)<br>독 4월 CPI(F)<br>미 4월 수출/수입물가 (0.7%/0.6%, MoM) | <b>15</b><br>한 4월 실업률(3.8%)<br>일 4월 공작기계 수주[P] (-28.5% YoY)<br>미 5월 제조업지수(10.1)<br>4월 광공업생산(-0.1%, MoM)<br>4월 설비가동률(78.8%)<br>3월 기업재고(0.3%)  | <b>16</b><br>일 4월 PPI(1.3% YoY/0.3% MoM)<br>미 4월 주택착공건수, 건축허가<br>5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8.5)  | <b>17</b><br>일 3월 3차산업지수(-0.6% MoM)<br>유 3월 건설생산 (3% MoM, 5.2% YoY)<br>4월 CPI(1% MoM, 1.4% YoY)<br>미 5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 <b>18</b> |
| <b>19</b> | <b>20</b><br>일 3월 광공업생산 (-0.9% MoM/-4.6% YoY)<br>독 4월 PPI (-0.1% MoM, 2.4% YoY)<br><br>Powell Speaks at Atlanta Fed Financial Markets Conference                              | <b>21</b><br>한 4월 PPI(0.1%, YoY)<br>미 4월 기존 주택매매 (-4.9% MoM)<br><br>Fed's Rosengren Speaks to Economic Club of New York  | <b>22</b><br>일 4월 수출/수입 (-2.4%/1.1%, YoY)<br>4월 무역수지(¥528.5B)<br><br>Fed's Bullard Speaks in Hong Kong on U.S. Economic Outlook<br>5월 FOMC 의사록 공개  | <b>23</b><br>일 5월 닷케이 PMI제조업[P]<br>유 5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br>독 5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br>5월 IFO 기업환경지수(99.2)<br>미 5월 Markit 종합, 제조업, 서비스PMI[P]<br>4월 신규주택매매(4.5% MoM)<br><br>유럽의회 선거(~26)                    | <b>24</b><br>일 4월 CPI(0.5%, YoY)<br>미 4월 내구재 주문[P]  | <b>25</b> |
| <b>26</b> | <b>27</b><br>일 3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br>독 6월 Gk 소비자신뢰지수  | <b>28</b><br>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101.6)<br>유 5월 경기대지수, 소비자대지수<br>미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 <b>29</b><br>한 6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br>미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 <b>30</b><br>미 1Q GDP 연간화(QoQ)<br>1Q 개인소비<br>1Q GDP 물가지수<br><br>Fed's Clarida Speaks to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 <b>31</b> 韓 금통위<br>한 BOK 기준금리(1.75%)<br>미 5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           |



##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http://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